

문서번호: fnnews 17-1212

수 신: 서울특별시장

참 조: 홍보담당

제 목: 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」 후원명칭 사용(의뢰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'First-class'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내년 2월 22일 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.

3.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긴급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때입니다. 저소득·저신용자들은 늘상 소액의 생활비조차 융통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게 현실입니다. 그나마 이들을 다독여주는 희망의 동반자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. 문재인 정부도 소득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.

4.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2018년 2월 22일(목)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서민금융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제 7회 서민금융대상 시상식과 함께 서민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.

5.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후원명칭 사용을 의뢰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- ◇ 행사 명: 「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」
- ◇ 주 제: 더 넓은 포용을 위한 서민금융의 길(가제)
- ◇ 일 시: 2018년 2월 22일(목) 09:00 ~ 13:00
- ◇ 장 소: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
- ◇ 주 최: 파이낸셜뉴스
- ◇ 후 원: 서울특별시,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 
서민금융진흥원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,  
새마을금고중앙회, 여신금융협회
- ◇ 문 의: 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사무국  
전화: (02)6965-0015 이메일: hy4452@fnnews.com

※첨 부 : 제7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획서 1부. 끝

파이낸셜뉴스신문(주)  
대표이사/사장 김주현

